

- 마지막 여행 -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논리-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종교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만 있을 뿐 말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 말할 수 있는 것 : 경험 가능한 것(사과, 의자, 사건등)=철학의 대상

말할 수 없는 것 : 경험할 수 없는 것(종교, 윤리, 예술등)=철학의 대상 아님

• 문제는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허황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번잡한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그의 선언은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적 문제를 끝낸 선언이었고, 이후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 당시의 영향력 있는 철학적 사조였다.

•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 것 뿐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 가치들은 철학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 예술의 아름다움이나 종교의 경건함이나 삶의 의미나 죽음의 신비는 다른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도 그랬듯,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예술과 종교와 삶과 죽음에 대한 주관적 체험이 나의 하나뿐인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문제임을 말이다.

• < 신비 > $\left\{ \begin{array}{l} \text{죽음} \left\{ \begin{array}{l} \text{죽음 순간: 임사체험} \\ \text{죽음 이후: 사후가능성} \end{array} \right. \\ \text{삶} \left\{ \begin{array}{l} \text{통시적: 인생} \\ \text{공시적: 의식}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죽음의 순간 -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와 철학적 입장

• 임사체험은 의학적 기준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후 특수한 체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임사체험 연구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일반화하면 임사체험의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된 패턴들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몸 밖에서 자신을 보는 체외 이탈의 경험,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 평온함의 느낌, 지각의 확대, 귀에 거슬리는 웅웅거리는 소리, 죽은 지인과의 만남, 인생의 회고, 경계 지점에서의 회귀등이다.

• 임사체험의 연구는 주관적 체험에 대한 연구인 까닭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체험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만큼 비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뇌 이상설이다. 뇌이상설은 죽음이 임박한 당시의 신체적 변화가 뇌에 비일상적인 영향을 주어 환각으로서의 경험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호르몬설’ 과 ‘산소결핍설’이 대표

적이다.

• 임사체험에 대한 논쟁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은 둘로 나뉜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 의식, 마음등 정신적인 그 무엇이 물질로서의 뇌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와 뇌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법칙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인과법칙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물심의원론이라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나 영혼이 단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 역시 다만 뇌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라는 입장이 이것이다. 이 입장을 물심일원론이라 한다.

- 죽음 이후 -

죽음 이후의 네 가지 가능성

• 죽음 이후의 가능성은 시간의 형태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다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죽음 이후의 가능성>

{ 무(無) 단절
영생 지속
윤회 반복
영원회귀 동일한 반복

• 가능성 1 - 무(無) :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가 고려하는 가능성이다. 신체와 독립된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이라는 현상은 다만 뇌의 물질적 조건이 충족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이다.

• 가능성 2 - 영원 : 신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나 정신은 소멸하지 않아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절대적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사후관이 이것이다.

• 가능성 3 - 반복 : 상대적 다신교인 베다 철학,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입장이다. 윤회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와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는 물심의원론의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의 입장에서도 윤회를 설명할 수 있다.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비물질적 존재로서 윤회하는 주체를 상대적 다신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한다. 특히 베다의 우파니샤드와이를 계승한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불변하는 본질적 실체로서의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한다.

•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윤회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답부터 말하면 윤회는 나의 의식이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혼이 없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세계를 보고 있는 나의 의식이다. 내가 세계를 보는 구심점으로서 의식적 존재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 가능성 4 - 동일한 반복 :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원회귀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는데, 이는 니체 사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아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정확히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없이 정확하게 동일한 삶의 영원한 반복이 영원회귀다.

니체가 이렇게 끔직한 사후관을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회귀가 사실이

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원회귀의 개념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회귀는 두 가지 시간의 길이를 전도시킨다. 그 두 시간은 ‘인생’과 ‘순간’이다. 니체는 영원회귀의 개념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나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임을 밝힌다. 영원회귀에 따르면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의 길이는 삶의 반복만큼 무한대로 길어진다. 반면 인생은 100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일 뿐이다. 순간과 인생의 길이는 역전된다. 순간은 무한한 길이를 갖지만 인생은 유한한 길이로 한정된다. 내가 지금 소모해버리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영원히 반복될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나의 삶을 창조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도록 삶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지 않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 이 존재가 니체가 말한 ‘초인’이다.

- 물론 현대에 와서 니체의 영원회귀는 과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카오스 이론이나,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에 근거하면, 니체의 영원회귀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과학적 실현의 가능성을 넘어, 삶의 의미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 나름대로 형성된 자신의 사후관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이라는 예정된 사건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위를 이해하게 하는 기준점이 된다. 죽음의 의미는 항상 삶의 의미와 엮여 있다.

- 삶 -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생과 공시적 측면에서의 의식

- 삶의 신비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안에서 발견되는 인생과 공간안에서 발견되는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내 인생의 의미와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은 알 수 없다. 내 인생의 의미와 이유는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다시 말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죽음은 필수적이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고 이해될 수도 없다. 죽음을 회피하고 모르는 체하려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일상이 허전하고 불안하며, 의미의 상실속으로 던져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 나의 의식에는 두 종류의 것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관념이다. 이 감각과 관념이 나의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 의식 -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 의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의 관념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관념론에 따르면 세계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현상과 물자체가 그것이다. 현상이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현상 세계와 다른 사람의 현상 세계가 동일한 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정말로 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해석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머릿속의 세계다. 칸트는 그래서 현명하게 세계를 둘로 구분한다. 내 눈앞의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 내가 구성해준 주관적인 세계로서의 ‘현상’세계다. 반면 내가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실제 세계, 전자와 광자가 회오리칠 것으로 예상되는, 빛이나 색깔은 없고 단지 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진짜 세계를 칸트는 ‘물자체’라고 불렀다. 칸트에 따르면 나는 현상 세계에 살고 물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

• 우리는 살아 있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식은 내적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내적 세계는 현상 세계를 말한다. 문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눈 앞의 현상 세계가 실제로는 내 머릿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 외부로 나가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 짜증나는 김부장, 카드 고지서, 핸드폰, 사회와 국가 모두 내 머릿속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폐아들인지도 모른다.

- 의식 너머의 세계 -

알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세계

• 그래서 살아 있음은 신비하다. 살아있다는 건 그 개인이 하나의 내적 세계, 하나의 우주를 소유하고 그 안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의 내적 세계는 서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타인이 나처럼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의 내적 세계는 순간순간 나에게 체험되고 있으므로 나에게서는 확실하지만, 타인의 내적 세계는 나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나에게 체험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래서 의식은 지금까지 자연과학으로 말해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같은 현상에 대한 복수 시점에서의 반복되는 관찰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험적 관찰에 의지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의식이든 타인의 의식이든 둘 다 말해 질 수 없다. 따라서 의식은 과학적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의식’과 ‘내적 세계’ 자체에 대한 논의 대신, 뇌신경에 대한 생리학적 분석, 심리적 행동에 대한 탐구등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만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 문제의 핵심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만이 실재한다고 믿는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이다. 현대인들의 과학주의적 신화는 그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논의되는 대상만이 실재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들은 매 순간 강렬하게 체험되는 자기 의식의 실체를 보는 대신, 과학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뇌신경에 마음을 쓴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로부터 세계를 설명하려는 습관은 눈앞의 세계가 그 자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오래전 인류의 지혜가 우려했던 마야의 상태(베다에서 말하는 눈 앞의 환영이 실제라고 믿는 착각)에 현대인은 처해 있다.

• 진정으로 신비하고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자신이 내적 세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나의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의미와 세계 속에 살아 있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내 눈앞의 세계가 나의 머릿속의 세계, 즉 의식 세계라고 할 때 나의 외부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칸트가 말했듯이 ‘물자체’라 할 수 있겠다. 실재 그 자체의 세계로서 물자체의 세계는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더듬어 볼 수 있을 뿐, 결코 인지할 수 없다. 그 세계는 우리의 현상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 현상 세계를 나름대로 구성한다. 물자체의 세계는 우리의 현상 세계와 대체로 닮았을 수 있고, 전혀 닮지 않았을 수도 있다.

- 의식 너머의 세계에는 빛이나 색, 표면, 손에 닿는 부드러움, 익숙한 향기, 사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광입자, 운동, 인력, 척력, 상상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들만이 존재하고 있다. 내 눈앞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심적 위안을 주는 믿음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